

주일에배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12월 26일 (제112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거울을 깨라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도 한 사람이 서 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건넨다. “너 왜 그랬어?”, “그건 잘못된 거잖아.” 나는 거울 속의 사람을 책망하고, 거울 속의 사람에게 권면한다.

또 거울 앞에 선다. 역시 거울 속에 한 사람이 서 있다. “내가 지난번에 경고했는데, 반복을 잘못하면 어떡하냐?” 하고 나는 거울 속의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진다. 거울이 깨졌다. 거울 속의 사람도 깨져버렸다.

거울 속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다. 거울 속의 사람은 거울 앞에 선 자의 복사판이다. 나를 그대로 반영할 뿐이다. 나는 매일 거울을 보고 거울 속의 사람을 향하여 경고를 보내고,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면 가차 없이 거울을 향해 돌을 던져 거울을 깨다. 수 없는 거울을 깬기에 오늘의 나를 만들 수 있었다. 나는 성도들에게도 ‘거울을 깨라.’고 했다. 내 말을 꼭 해야 하면 애꿎게 멸망한 거울만 깨게 된다. 내가 거울을 깨라고 한 것은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바뀌어야 거울 속의 사람이 바뀌기 때문이다. 거울 속의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멋져지려면 거울 앞에 서 있는 내가 새로워져야 하고, 멋져져야 한다. 거울을 수없이 깨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거울 속의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2021년이 황하니 다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 모든 것을, 못 이룬 것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 댈다. 참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셈이다. 코로나가 일상에 제약을 걸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코로나가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핑계나 대고 있는 거울 속의 사람을 향해 돌을 던져야 한다.

거울 앞에 서라.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거울 속의 사람,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거울 속의 사람, 매사 대충인 거울 속의 사람을 향해 돌을 던져 거울을 깨라. 그래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빌2:15), “머리가 뿔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신28:13)는 말씀을 이룰 수 있다.

거울을 깨라. 과거의 잘못된 너를 버려라. 그리고 새 거울로 바뀌라. 2022년이 밝고 희망차게 될 것이다.

세월의 파도가 미친 듯 거세게 밀려왔다 수평선으로 속절없이 사라져가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2021년, “이대론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한 해의 슬로건을 붙잡고 어떻게든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며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위기 가운데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령충만을 누리던 신앙생활의 기쁨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예배를 통하

의 세상살이로 가득한 일상, 그게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 지옥이었습니까. 지옥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터널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갇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이 계속된다면 어떨 거 같아요? 지극히 작은 통증이라도 그것이 낫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지옥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문이 닫혔다는 것이고, 그 나라를 향한 이 땅의

고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중국의 천안문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꿈, 베네수엘라와 우루과이에서 요청한 100만 명 집회의 꿈, 통일 후 우리 교단에서 사회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배출한다는 꿈..., 내 나이 70을 넘어 80을 바라보고 있지만, 나는 청년의 기상과 꿈을 가지고 내 삶의 여백을 채우기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전심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영원한 꿈, 곧 천국에서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 떡을 떼며 예수님과 함께 열두 지파를 심판



여 그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했지만, 목사님 표현처럼, 아무래도 냉동고기가 생고기만 했겠습니까. 날것처럼 역동적이고 생동하는 우리 예배의 힘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습니까.

그동안 날마다 숨 쉬는 공기처럼 무감각하게,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감사도 없이 누려왔던 모든 일상들, 그리고 우리가 누려왔던 신앙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을 한낱 바리새에 의해 빼앗기고 내니 인간의 나약함, 감사를 모르던 무감각 등 많은 것들이 후회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봅시다. 그 옛날,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었던 400여 년의 시간을. 과연 그게 삶이었을까요?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영혼은 피폐해가고 인간의 악한 본능만 남아 이전투구

수고에 따라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특권,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소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요즘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꿈은 우리를 버린 적 없습니다. 희망도 우리를 버린 적 없습니다. 믿음도 우리를 버린 적 없습니다. 당신이 꿈을 버렸고, 당신이 희망을 버렸으며, 당신이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의 삶이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피폐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꿈이 있습니다. 세계교구를 꿈꾸며 달려온 37년의 목회는 나의 꿈이 실현되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삶에는 여백이 남아있습니다. 채워야 할 꿈이 있습니다. 남북통일을 이루

하는 꿈을 향해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가 이끌고 있는 삶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한 사명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변함없는 뜻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꺾이지 견디며 나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명에 부도 내지 말고, 지나간 시간을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는 자세로 천국을 향해, 풍성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그날의 면류관을 바라며 꿈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 및 수요일예배 대면예배 안내

접종완료자만으로 70% - 1체육관, 1차 및 비접종자는 30% - 2체육관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1:8)

나는 37년 성령의 불을 던지러 다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눅12:49).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무슨 불이나?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자동차나 배, 비행기에 휘발유를 넣으면 엔진 속에서 불이 붙고 추진력이 생기어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음식이 들어가면 칼로리가 생성되어 열을 내게 되지요. 그 힘으로 몸이 움직이고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움직이려면 불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아닌 성령의 불이 붙어야 영혼이 강건케 되고, 주님이 명하신 일을 추진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자 나아가 예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불기능은 없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행1:8). 무슨 권세와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마28:18).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니라”(행10:38).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그 권능으로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일으켜 걷게 했고(행3),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으켰으며,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린 것입니다. 이 능력은 70인의 제자에게도 임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은 바

로 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막16:17),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랄 일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할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한 이



총회장 이초석 목사

보 다 큰 것 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권세가 주어져 우리를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소유하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말입니다.

37년 동안 지구를 150바퀴 이상 돌며 전 세계 72개국에 들어가 제가 한 일은 바로 이 성령의 불을 던진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나라에 가든, 누구 앞에서든 당당히 “나는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

리의 구원자임을 시인하게 하고, 회개케 한 다음 통성으로 기도하여 성령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끝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이미 불이 붙었으니 성령이 역사하사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뜨거워서 귀신이 떠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불을 붙이려면 먼저 내가 불이 붙어야 합니다. 내가 뜨거우면 옆에만 있어도 불이 옮겨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 때는 7시간 기도합니다. 해외선교 일행인 한은택 목사가 제 호텔 방에 들어와

보 니 침 대 에 는 들어간 흔적도 없 이 침대 밑에 타월 두 장이 겹쳐있고 무릎 자국만 있었다는 글을 썼지요? 그래야 합니다. 남에게 불을 붙이려면 내가 활활 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밤늦도록,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게 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보일러에 기름이 계속 들어가야 불이 꺼지지 않는 것과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됩니다. 사실 기도가 힘듭니다. 그래서 안 하다 보면 어찌 됩니까? 불이 꺼지게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지요. 그런 자의 삶은 어떨까요?

성령을 소멸한 자는 돈을 잃어버린 자와 같습니다. 지갑은 명품인데, 지갑은 그 털싸한데 지갑이 비어 있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궁색하게 살아야죠. 또 성령을 소멸한 것은 좋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총알이 있어야 꿈을 잡든지, 여우를 잡을 텐데 총알이 없으니 되레 그것에 쫓기는 신세

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나와 우리 가족들을 가지고 노는데도 총알이 없으니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소멸한 자는 배터리가 떨어진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최신형 핸드폰이라고 해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 핸드폰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도, 걸 수도 없고,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할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 그 신세가 어떨겠습니까?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라

또한 성령을 소멸한 자는 전기가 나간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온 집안이 캄캄해서 앞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서 다치고, 도적이 들어와서 다 훔쳐가고, 때리고 해를 입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귀신의 밥이 됩니다. 그놈이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아프게 해도 속수무책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불 꺼진 삶이 어찌 되는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마12:43~45). 그러니 불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사람의 자녀이지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가난과 전쟁 중입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성령충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충만을 입으면 병과 가난과 절망과 고난을 쥐고 있는 악한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빌2:10). 지혜로운 자는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붓는 자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기 전에 기도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세상 ::

세상을 이기는 지혜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말은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다. 그러나 많을수록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물속에 전염병균이 많으면 오염된 물이 될 것이요, 죄가 많으면 죄인들이 판을 칠 것이요, 악령이 많으면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약점은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수가 되면 소수를 지배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불법도 숫자만 많으면 통과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다수당을 만들려 하고 무슨 일에도 많은 인원을 동원하려 하고 수의 관심은 진리의 관심을 능가하고 있다. 또한 돈이 많으면 재벌대우를 받으니 잘 살려고는 해도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아 빈익빈 부익부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참 진리와 행복은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적을수록 더 좋은 경우도 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신다. 제자들에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복잡한 내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버리고 주를 좇으라고 하셨다.

모든 것을 버린 사람,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공의를 위해 사는 사람, 생명까지 버리고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 같이 자기 생명을 주어 백성을 살리는 지도자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사고는 경쟁과 싸움과 이기주의를 낳아 멸망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적을수록 좋다는 ‘소소익선(少少益善)’의 의식을 가진 의인이 이 땅에 편만할 때 의인의 나라, 의인의 교

회, 의인의 가정들이 되어 서로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어주는 새 세상이 올 것이다.

세상일의 고난과 험통 그 자체는 중성적이다. 즉 그 자체로 영혼의 유익이 되는 축복은 아닌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소화하는가이다. 흥하여서 좋게 된 자는 더 담대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매진할 일이며, 망하여서 괴롭게 된 자는 더 애통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만을 간구할 일이다. 그러할 때 세상의 모든 썩어질 사건들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으로 연결되고 변화되는 것이다. 문제는 주님께 불려갈 때 자기 수중에 세상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아야 될 일이다. 주님 앞에 이미 다 옮겨져 있는 자가 진정으로 세상에서의 주님 일에 만사행통한 자인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 알 수 없는 내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다고 해도 아쉬울 것이 없는 영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딤후6:17~19).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성경에세이 ::

회개와 반성

여보게!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네. 참 빠르구먼. 하긴 세월이 70대에는 70km/h로 지나간다고 누가 그러더군. 정말 눈 깜짝할 동안에 2021년이 휘익 지나가 버렸네.

1년을 마감하는 지금, 나는 ‘회개와 반성’이라는 주제를 자네에게 던지고 싶네. 왜냐고? 2022년에는 깨끗한 심령으로 시작하길 바라서야.

자네는 회개와 반성이 같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나? 언뜻 회개와 반성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네. 잘 들어보게. 컵에 더러운 물이 한가득 있다고 해보세. 그 컵을 가만히 두어 더러움을 가라앉히는 것, 그것은 반성이라네. 그러나 컵에 있는 더러운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다시 컵을 채우는 것, 그것이 회개이지. 이해가 되는가?

가라앉은 물은 조금만 휘저어도 다시 더러운 것들이 떠오르지.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은 언제든 다시 그 죄가 스멀스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회개는 완전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한단네. 잘못을 끊어내는 것,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 생명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회개야.

주님은 우리가 반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네. 그래서 좀 강한 어조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지.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5:29~30).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라는 거야. 아프지만 죄악을 잘라내라는 거야.

여보게!

1년을 돌아보게. 잘못된 것들, 잘못된 것들이 생각날 거야. 반성에 그치지 말고 회개하게.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반성하는 것은 결국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돼지가 목욕을 시켜놓아도 다시 더러운 곳에 벌렁 드러눕는 것과 같다네. 결국 4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걸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진다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나.

2022년,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달려보세. 하나님이 기뻐하사 쪽쪽 밀어주실 걸세.

봉우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면

위드코로나가 실시되면서 주춤했던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들을 하나둘 처리하다 보니 일정 중 수요일예배를 준비하는 시간과 미팅 일정이 겹치게 되었다. 클라이언트와 주문한 업체에게 연락해서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연락이 오지 않았다.

화요일 저녁 JC아카데미를 마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일정 확인 차 연락이 왔다. 나는 시간을 앞당겨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오후에는 중요한 일정(수요일예배준비)이 있으니 주문업체랑 스케줄을 조정해서 연락을 달라고 했다. 클라이언트는 주문 업체에게서 연락을 못 받았다고 미안하다고 했고, 언제 시간이 가능한지 내게 물었다. 그리고 내 스케줄에 맞춰 일정을 조정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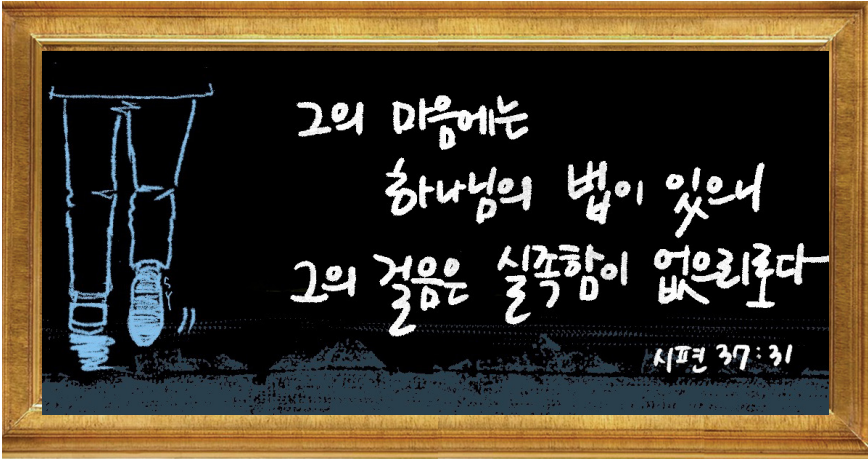
다음날, 주문 업체와 만나 업무를 조율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내가 말하는 대로 클라이언트와 주문업체들이 끌려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욱이 내가 맡은 부분 중 복잡한 부분이 있었는데, 주문업체에서 ‘어차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까지 했다. 복잡한 것들은 다 해결되고 일하기 편한 상황이 되었다.

수요일예배를 준비하러 가는 길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일정도 내가 바라는 대로, 업무도 내가 일하기 편하게 진행되게 되다니! 분명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느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는 말씀은 사실이야 진리다. 아멘!

이은성
es2563@naver.com



:: 낮은 울타리 ::

깨어있으라

어느 때처럼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 알람을 맞춰 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빠져 알람 소리를 듣지 못했고, 결국 저는 그날 새벽기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총회장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멸망하는 자의 공통점은 깨닫지 못한 자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찢리면서도 ‘나는 잠에서 <깨지> 못한 자이지, <깨닫지> 못한 자는 아니니까.’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하루가 가기 전 하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떠올리게 하시며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막13:28~29).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을 본 자만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일어나 무화과나무의 변화를 보지 못하면 결국 여름이 가까워지는

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막13:32~33).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변하는 것을 봐야지 여름을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오시는 때도 내가 깨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멸망하지 않기 위해 깨달아야 하고, 깨닫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깨달음으로 저는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 새벽기도에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깊은 잠에 빠지면 알람을 듣지 못하듯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깊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깨달아 멸망하지 않는 자가 됩시다.

장수정
sjjang50@gmail.com

목사님은 뭔가 달랐습니다



‘이초석 목사’라는 이름과 그분의 설교를 처음으로 접한 것은 2014년 6월에 열린 동경집회 유튜브를 통해서입니다. 사실 이 유튜브 영상은 이단, 컬트 집단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단체직원으로부터 받은 메일에 첨부된 것이었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이초석 목사는 신처럼 신격화 되어있고, 성서론, 신론, 창조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악마론, 이 모든 것이 비성서적이며, 이 교회는 한국교회의 이단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라

는 경고문과 함께 그 증거로 유튜브 영상을 나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병, 재앙을 쫓아내고 일본 복음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처럼 힘차고 성경적인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설교는 사랑, 운유, 겸손 등의 품성을 몸에 지니게 하는 것들이 중심이었습니다. 병과 가난 등의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를 드리며 운유함으로 인내하라는 수동적인 면이 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초석 목사님의 설교는 달랐습니다. 병, 가난, 고통 등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처럼 금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초석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대기업에서 20년 이상 회계사로 종사하며 표준이상의 수입과 생활로 만족하고 있었기에 헌신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침례는 받았지만 올바른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한 것은 5년 전부터였으며, 주의 종으로 주님께 쓰임 받은 만한 모범적인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40대 중반부터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지금까지의 캐리어를 버리고 신학교에 다니며 주의 종의 일을 처음부터 배우는 일에 대해서 내심 “왜 나지? 이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초석 목사님의 설교는 ‘이런 나일지라도 가능성은 있다.’는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도 제일 인상에 남는 것은 “나는 여러분을 이 나라의 머리로 만들어줄 자신이 있는 목사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초석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일본 복음화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초석 목사님의 설교와 서동경 예수중심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구마구라 켄타 생도**

Good News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념하여 들뜬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요, 구원 사역의 장엄한 서곡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런데 모든 자들에게 임한 평화가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임한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성경 가운데 가장 슬픈 구절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사관의 주인은 물려오는 손님들 때문에 돈 버는 일에 정신이 없

었고, 서기관들은 해박한 성경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찾아가지 않았고, 헤롯왕은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두 살미만의 영아들을 모두 죽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가까이에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예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을 받고 영생복락의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한라에 핀 샤론의 꽃 ::

고귀한 나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바로 생명이다. 지구상에 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인간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증거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동절기 영향으로 우리나라 혈액 보유량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말까지 헌혈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00여 건이 감소했으며, 11월 17일 기준 혈액 보유량이 4.1일분으로 적정 혈액 보유량 5일분을 밑돈다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는 헌혈선진국이다. 2018년까지 한해 280~300만 명이 꾸준히 헌혈을 해왔고 단체 헌혈이 혈액보유량의 높은 비율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면서 감염 우려와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헌혈을 피하다 보니 헌혈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만 보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성경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벧전3:11)고 말씀하고 있다. 12년 전, 필자는 두려우면서도 고귀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다양한 수단(e-mail, 메신저,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해 나와 유전적 인자가 90% 이상 일치하는 이의 생명과 관련하여 나를 찾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두려웠다. 그러다 예수님이 수혈해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기회를 내어주셨단 생각이 들었고,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 베드로전서 3장 13~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님께 승낙 받고 여러 절차를 거친 후 생명 나눔을 경험했다. 참 감사함이었다. 그 후, 필자는 잊지 않고 기도한다. 나에게 혈액을 통해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은 이가 육신의 건강 그 이상 예수님의 피로 영혼이 강건하기를 말이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 현대사회를 우주과

학시대라고 말하지만, 혈액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굴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에 거룩하신 예수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수혈 받은 우리가 나서보는 것이 어떨까. 헌혈은 일회성보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까지가 중요한 절기이다. 이때 예수님의 나눔을 생각하며 헌혈을 실천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진 우리가 대한민국을 피로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Dr. 권정미**
jmgood77@gmail.com

충간소음 해결법

지난해 아래층에 새로 이사 온 할머니가 수시로 우리 집을 찾아와 뛰지 말라고 했다. 우리 집이 아니라 옆집에서 어린애 2명이 뛰는 듯 하다고 매번 해명해도 소용없었고 밤낮으로 찾아와 실랑이를 벌이며 힘들게 했다. 어느 날은 자정이 넘은 듯 했는데 또 현관문을 두드리며 잔소리를 한참 동안 하고 가셨다. 하루는 잠을 설치 괴곤했던 나는 새벽 3시경 일찍 일어나 아래층에 들러서 할머니가 한 것처럼 똑같이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 때문에 가족 모두 잠을 설치다’며 큰소리를 쳤었다. 그러나 그 일이 마음 편할 리가 없다. 얼마 후 나는 이사하여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여우 피하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라 했던가. 이번에는 위층에서 밤새도록 술주정 고함이 이삼일에 한 번꼴로 들려왔다. 이웃들이 이에 무반응인 걸 보니 다 포기하고 받아들인 듯했다. 그러다 우연히 충간소음을 해결했다는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 어느 분이 ‘쿵쿵쿵쿵’, 극심한 발명치 소리에 참다 참다 분기탱천하여 위층 벨을 눌렀는데,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와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우리 영감님이 중풍에 걸려 조금씩 회복 중인데, 지팡이에 체중이 실려 소리가 난다.’고 했다. 그 뒤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미안하다며 지팡이에 의지해 서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부모님 생각이 나서 ‘괜찮다. 빨리 쾌차하시라.’며 돌아섰다고 한다. 그 후론 쿵쿵 소리가 나도 짜증나지 않고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마음을 바꾸면 환경이 바뀐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된다. 충간 소음갈등,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사 가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긍정과 포용이 생긴다.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원수가 아니라 이웃사촌이 될 수 있다. 위층 고함에 ‘대신 내일은 꿀잠이다.’ 생각하니 마음속 평화가 밀려온다.

추성숙 집사

